

까다롭게 먹는 유아의 식습관과 성장발육 및 어머니의 식사지도와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icky Eating Behavior,
Physical Growth and Mother's Child Feeding Practice

이재은(Jae Eun Lee)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picky eating behavior and mother's attitudes, beliefs and practices regarding the eating habits of children. Using a sample of 304 mothers of four or five year-old childre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a 7 factor model, which included mother's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feeding of their children. Following this, a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eeding behaviors of mothers of both of picky and non-oicky eaters,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picky eater's eat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ressures exerted by mothers and negatively related to the mother's concerns about their child's weight and child's BMI.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essures mothers exert upon their children to eat, their child's weight and picky eating behaviors are correlated to each other.

Key Words : 유아기 식습관(child eating habit), 까다롭게 먹는 유아 (picky eating child), 어머니의 식사지도(mother's child feeding practice). 체중과 체질량지수 (child body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식사강요(pressure to eat).

¹⁾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ae Eun Lee, 11624 Jollyville Rd. #617 · Austin, TX 78759
E-mail : jelee730@gmail.com

I. 서 론

유아기는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이후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고,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양과 성장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기는 자기만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기의 본능적 욕구충족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우므로 이 시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절한 식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사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식습관 지도 관련 어머니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유아기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식태도, 식행동, 자녀 섭식에 관한 부모의 식사 지도방법 등을 들고 있다(Birch & Fisher, 2000). Birch 등(2001)은 자녀 섭식에서 부모의 행동은 음식섭취의 제한과 강요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음식섭취 제한은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식품들의 섭취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특히 열량 밀도가 높은 간식류 식품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한다. 음식섭취의 강요는 성장발달에 유익한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나타난다.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식품 및 음식에 대한 규제나 유익한 식품의 섭취 강요와 같은 부모의 식사 조절 행위는 부모가 자녀의 식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문헌고찰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발달이 더디거나 자녀의 체중이 정상보다 미달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자녀에게 식사강요를 더 하려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Francis *et al.*, 2001).

특별히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Jacobi 등(2008)에 따르면 성장과 발육, 건강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이나 음식을 자주 거부하는 유아들을 까다롭게 먹는 아이라고 정의한다. Carruth 등(2004)은 생후 4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유아의 섭식연구에서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까다로운 식행동으로는 자녀가 한두 가지 식품만 먹거나 새로운 음식을 수용하지 않고 채소를 기피하거나 특정 식품에 대한 강한 기호성을 보이는 경우라고 제시한다. 그 외에도 식사시간이 길거나(Reau *et al.*, 1996), 충분히 먹지 않거나 자주 음식을 골라 먹는 편식(Marchi & Cohen, 1990), 음식에 대한 네오포비아 등(Birch *et al.*, 1998)이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아기의 까다로운 식행동의 발생률은 조사 대상자에 따라 8%에서 50%사이로 유아기에 흔한 섭식문제이다(Carruth *et al.*, 2004; Dubois *et al.*, 2007; Jacobi *et al.*, 2008). 영양학적 관점에서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청소년기 성장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Marchi 와 Cohen (1990)은 유아기 까다로운 식행동은 청소년기 거식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Rydell 등(1995)과 Jacobi 등(2003)은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체중미달, 비만 또는 에너지 섭취량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영양학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유아기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사회성과 정서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식습관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Park와 Ahn(2003) 연구에 따르면 식사시간이 불규칙할

수록, 매일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수록 위축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이 부정적 정서성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Fabes *et al.*, 1999;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정서발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Gwon & Sung, 2012). 즉, 유아기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특정음식의 편중된 섭취, 음식 거부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형성을 초래하여(Pelchat & Pliner, 1986). 영양학적으로 유아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 및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식사지도 시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에서 급식지도를 하는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까다롭게 먹는 유아의 식습관 및 식행동 특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머니의 식습관 지도 유형 및 섭식 조절 정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유아기의 까다로운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까다로운 식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에게 부모와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Kim 등(2006)은 자녀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식행동과 식사지도방법을 꼽았으며 그 외에 아기의 기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Gwon과 Sung(2012)은 유아의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기질이 식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문제를 통해 식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Lee와 Lee(1996)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급식 시 식사지도 활동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외에도 어머니와 유아의 식습관 관련성(Pyun & Lee, 2010), 유아 편식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Oh & Chang, 2006) 등이 연구되어왔다.

위에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유아의 섭식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태도와 행동을 조사한 것으로서 까다로운 식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식습관과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부모의 개입이 과도한 우리 환경에서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과 성장 발달 그리고 부모의 섭식 전략으로서 식사강요나 규제와 같은 식사지도행위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이다. 자녀 섭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조절은 섭식에 관한 아이 스스로의 조절 능력(self control)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Johnson & Birch, 1994) 건강한 식행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유아기라면 까다로운 식행동은 부모의 식습관 지도 유형 및 섭식 조절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첫째 까다롭게 먹는 아이의 식습관 및 식행동이 부모의 식사지도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부모의 식사지도 행위와 자녀의 성장 및 발육, 특히 자녀의 체중 상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까다롭게 먹는 유아의 식행동 특성이 무엇이며, 이러한 자녀의 까다로운 식생활에서 어머니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기 건강한 식행동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까다롭게 먹는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급식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까다롭게 먹는 유아의 식습관 및 식행동이 어머니의 식사지도 방법 및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식사지도 방법 및 태도가 자녀의 성장과 발육, 특히 자녀의 체중상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못하는 경우 유치원에 비치된 유아의 성장발달 상황 기록에 기재된 것을 참고하였다. 유아의 성장발육 지표로는 체중과 신장을 고려한 유아의 개인별 체질량지수(BMI)를 체중(kg)/신장(m²)으로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최종 연구 대상자 304명에 대한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용인과 수원시에 위치한 3개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4세 및 만 5세 유아 총 32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유치원에서 어머니 교육과 상담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유치원에서 실시되었다. 어머니교육이 시작되기 전 연구자와 교사가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 322부를 배포하여 어머니가 직접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완성한 후 309부를 회수하였다. 조사는 20분 내외이었으며 회수율은 96%로 양호하였고 이 중 일관성이 없거나 무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304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는 유아의 성별, 생년월일, 유아의 체중과 신장을 조사하였고 어머니에 대하여는 연령, 어머니의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족의 월 소득 수준을 조사하였다. 유아의 체중과 신장은 어머니가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기억하지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Mean±SD
Children	
Gender	
Male	153 (50.3)
Female	151 (49.7)
Age (yrs)	5.13 ± 0.56
Weight (kg)	18.67 ± 2.66
Height (cm)	109.48 ± 5.93
BMI (kg/m ²)	15.55 ± 1.71
Mothers	
Age (yrs)	35.64 ± 2.99
BMI (kg/m ²)	21.00 ± 2.17
Education	
High school	41 (13.5)
College	234 (77.0)
Graduate school	29 (9.5)
Employed	
Yes	100 (32.9)
No	204 (67.1)
Monthly family income (ten thousand won)	
100~199	3 (1.0)
200~299	25 (8.2)
300~399	91 (29.9)
> 400	185 (60.9)

2. 측정도구

1) 자녀 섭식과 체중에 대한 어머니의 식사지도 행위

자녀섭식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인식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즉 어머니의 식사지도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Birch 등(2001)이 개발한 Child Feeding Questionnaire(CFQ)를 번안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자녀 섭식에서 어머니의 조절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녀와 어머니의 체중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3개의 요인은 어머니 자신의 과거, 현재 체중상태에 대한 인식(4항목), 과거, 현재 자녀 체중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3항목), 자녀 체중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3항목) 등 10항목이었다. 이에 대한 문항의 예는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청소년기, 20대 및 현재의 체중에 대해 과체중,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와 같다. 또한 자녀의 섭식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어머니의 태도와 실행 즉 식사지도행위에 관한 4개의 요인을 추가하였다. 즉 책임감 인식(3항목)은 자녀 섭식에 대해 섭취량과 음식의 종류를 결정하는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내용을 담았고, 규제행위(8항목)는 자녀의 식품섭취를 제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요행위(4항목)는 식사시간에 자녀에게 더 많이 먹을 것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문항의 예는 「내 아이가 단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내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해도 어떻게든 먹도록 애쓴다」와 같다. 모니터링(3항목)은 자녀의 식사를 감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단 음식, 고지방 식품섭취에 관한 것을 포함하였다. 모든 항목들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표시하는 5점 척도법(5 point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체중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심한 과체중, 과체중, 정상체중, 저체중, 심한 저체중 등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과 자녀의 체중상태를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CFQ의 원척도는 Birch 등(2001)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밝혀진 척도이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타당도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번안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 결과 28개 요인-항목 간 상관계수의 범위가 .42~.88로 원척도의 .37~.95범위와 유사하였다. 각 요인별 항목의 내적일치도(크론바흐 알파)는 자녀섭식에 대한 책임감 인식 .60, 어머니 체중인식 .70, 자녀의 체중인식 .80, 자녀체중에 대한 염려 .70, 식사규제 .59, 식사강요 .72 및 자녀섭식 모니터링 .87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의 평가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의 평가는 조사대상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당신의 자녀가 까다롭게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같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를 까다로운 식행동(picky) 그룹으로 간주하였고, 그 외 응답은 까다롭지 않은 식행동(non-picky) 그룹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를 까다로운 picky 그룹과 그렇지 않은 non-picky 그룹의 분류내용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4.3%에 해당하는 74명이 picky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남아 중 까

다로운 식행동 유아는 39명으로 25.5%이고, 여아 중 picky그룹은 35명으로 23.2%로 남녀별 까다로운 식행동 유아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일 질문으로만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을 평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arruth 등(2004)의 4~24개월 된 영유아 섭식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였고 Jacobi 등(2003)도 2~5세 유아 대상으로「자녀가 까다롭게 먹습니까?」와 같은 어머니의 주관적 견해를 묻고 있었으며 Mascola 등(2010)이 수행한 아동기의 까다로운 식행동의 지속성 연구에서도 “항상 그렇다”와 “자주 그렇다”에 응답한 대상자를 까다로운 식행동 그룹으로, 나머지 응답은 그렇지 않은 식행동 그룹으로 구분한 바 있다.

3) 유아의 식행동

Mascola 등(2010)이 아동기 식행동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는 Stanford Feeding Questionnaire(SFQ)를 번안하여 10문항에 대해 5점 척도법으로 유아의 식행동을 평가하였고, 유아의 식행동의 예로는 제한된 종류의 식품섭취 경향, 가족식사와는 다른 유아를 위한 별개의 조리형태나 음식 섭취, 새로운 음식의 수용성, 편식, 먹는 속도, 식사시의 비협조적인 행동 등을 포함시켰다. 본 측정도구의 크론바흐 알파는 .80으로 내적일치도가 비교적 높았다.

4)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태도 조사

유아의 식행동 조사에서와 같이 Stanford Feeding Questionnaire(Mascola *et al.*, 2010)를 적용하여 까다롭게 먹는 자녀의 식행동과 관련하여 자녀와의 갈등, 식사에 비협조적일 때의

어머니의 행동 및 태도 등 13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식행동에 대한 반응정도가 높다고 간주하였다. 이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아이가 잘 먹지 않을 때 야단을 치거나 말다툼을 한다」이다. 본 측정도구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60이었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유효한 설문지 304부의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자녀섭식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인식 및 실행 정도를 묻는 설문문항(CFQ)에 대하여 상호관련성을 이용하여 변수 속에 내재된 공통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식사행동과 자녀섭식에 관련된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화된 각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값을 산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군집을 까다롭게 먹는 유아군(picky군)과 그렇지 않은 유아군(non-picky군)으로 나누어, 자녀섭식에 대한 어머니의 제반 변수들이 차이가 있는지 또한 두 군 간의 식행동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로 검정하였고 변수간의 선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통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특정 설명변수의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녀 섭식 및 체중상태와 관련한 어머니의 식사지도 행위(CFQ 점수)와의 상관성 분석

자녀섭식과 성장발달에 관련된 어머니의 식사지도, 즉 자녀섭식이나 체중상태에 관한 어머니의 태도, 인식 및 실행 등을 조사한 7개요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규제행위와 모니터링 항목이었고 ($r = .44, p < .001$) 규제행위와 자녀의 체중과 섭취량에 대한 염려($r = .36, p < .001$), 자녀 섭식에 대한 책임감 인식과 모니터링 ($r = .36, p < .001$) 및 식사강요행위 ($r = .33, p < .001$)간의 상관성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자녀의 체중에 대한 염려와 관심도가 더 높을 때 더 많은 규제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자녀의 음식 섭취량과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를 결정하는 자녀섭식에 대한 책임감이 클수록 모니터링 점수가 높고 식사강요행위점수와 식사규제행위점수가 동시에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식사강요행위점수는 자녀체중에 대한 인식점수와 음의 상관성을 보여 자녀가 마른 체형

을 보이면 식사강요행위점수는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r = -.18, p < .01$). 이와는 달리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규제행위점수가 높아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r = .14, p < .05$). 흥미로운 것은 식사규제점수와 식사강요점수 사이에 상관계수(r)가 .2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CFQ의 요인 값과 자녀 및 어머니의 체질량 지수(BMI)와의 상관성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유아의 BMI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체중관련 요인인 자녀 체중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r = .46, p < .001$)과 자녀의 과체중에 대한 염려($r = .28, p < .001$)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의 규제행위 점수와 자녀 BMI와는 양의 상관성($r = .16, p < .01$)이 있었고 식사의 강요행위 점수와는 음의 상관성($r = -.13, p < .01$)이 있었다. 어머니의 BMI와는 어머니 자신의 과체중 인식정도와 ($r = .59, p < .001$) 자녀의 체중인식 정도($r = .18, p < .01$)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BMI는 식사규제나 식사강요 행위와는 상관성이 없었다. 즉 자녀의 BMI가 크면, 다시 말해 과체중에 가깝다면

<Table 2> Correlations for the seven factors in child feeding questionnaire

	1	2	3	4	5	6	7
1. Perceived responsibility	-						
2. Perceived mother weight	-.02	-					
3. Perceived child weight	-.06	.20**	-				
4. Concern about child weight	.09	.10	.33***	-			
5. Restriction	.32***	.09	.14*	.36***	-		
6. Pressure to eat	.33***	-.05	-.17**	-.01	.25***	-	
7. Monitoring	.36***	-.02	.14*	.31***	.44***	.26***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CFQ scores and child-mother BMI

CFQ sub-scale	Body Mass Index (kg/m ²)	
	Child BMI	Mother BMI
Perceived responsibility	.03	-.06
Perceived mother weight	.08	.59***
Perceived child weight	.46***	.18**
Concern about child weight	.28***	.07
Restriction	.16**	.02
Pressure to eat	-.13**	.01
Monitoring	.10	-.03

p* < .01. *p* < .001.

자녀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 체중에 대한 염려도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BMI가 높으면 어머니의 식사 규제가 더 많고 식사 강요는 반대로 적어진다는 것이다.

2. 까다롭게 먹는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의 섭식과 체중에 관한 어머니의 식사지도 행위 (CFQ 점수)의 비교

Table 4에 까다롭게 먹는 유아와 그렇지 않

<Table 4> Mother's child feeding scores between picky and non-picky eaters

	Boys		Girls		Total	
	Picky (n=39)	Non-picky (n=114)	Picky (n=35)	Non-picky (n=116)	Picky (n=74)	Non-picky (n=230)
Perceived responsibility	3.75 ±.66	3.54 ±.59	3.63 ±.54	3.59 ±.56	3.69 ±.61	3.56 ±.57
Perceived mother weight	3.01 ±.49	2.99 ±.36	2.83 ±.42	2.93 ±.38	2.92 ±.46	2.96 ±.37
Perceived child weight	2.81 ±.49	2.97 ±.43	2.62** ±.54	2.96 ±.49	2.72** ±.52	2.96 ±.46
Concern about child weight	2.06 ±.76	2.17 ±.69	2.14 ±.77	2.43 ±.83	2.10 ±.76	2.30 ±.77
Restriction	3.28 ±.60	3.13 ±.51	3.03 ±.43	3.14 ±.53	3.16 ±.54	3.13 ±.52
Pressure to eat	3.31*** ±.52	2.88 ±.52	3.17* ±.60	2.89 ±.59	3.24*** ±.56	2.88 ±.55
Monitoring	3.40 ±.72	3.28 ±.79	3.46 ±.60	3.38 ±.73	3.43 ±.66	3.33 ±.76

p* < .05. *p* < .01. ****p* < .001.

은 유아에 대하여 어머니의 자녀 섭식에 관한 태도 및 실행 정도(CFQ 점수)를 비교하였다. 7개 요인 중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식사 강요행위와 자녀 체중에 대한 인식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까다롭게 먹는 남아와 여아의 식사강요행위 점수는 각각 3.31±.52와 3.17±.60으로 그렇지 않은 유아의 2.88±.52와 2.89±.5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p < .001$, $p < .05$) 전체적으로도 까다로운 식행동을 보인 유아에서 어머니의 평균 강요행위 점수가 3.24±.56으로 그렇지 않은 유아의 2.88±.5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1$). 자녀의 체중에 관한 인식은 남아에서는 두 군 간 유사하였지만 여아에서는 까다롭게 먹는 유아

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유아의 어머니보다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p < .01$). 즉, 까다롭게 먹는 여아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이 아닌 정상 또는 저체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까다롭게 먹는 유아의 식행동 특성과 어머니의 태도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의 식행동은 까다롭게 먹는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5).

까다롭게 먹는 유아들은 식사구성이 다양하

<Table 5> Mother's reported child behaviors related to picky eating

	Boys		Girls		Total	
	Picky (n=39)	Non-picky (n=14)	Picky (n=35)	Non-picky (n=116)	Picky (n=74)	Non-picky (n=230)
Limited variety of foods	3.64*** ±.74	2.39 ±.91	3.57*** ±.81	2.49 ±.88	3.61*** ±.77	2.44 ±.89
Uncooperative eating	3.54*** ±1.16	2.76 ±.94	3.74*** ±.95	2.78 ±.90	3.64*** ±1.06	2.77 ±.92
Food Prepared in specific ways	2.64* ±1.15	2.17 ±.80	3.11*** ±1.10	2.15 ±.87	2.86*** ±1.15	2.16 ±.84
Accepts new foods readily	1.95*** ±.60	3.07 ±.77	2.00*** ±.72	3.07 ±.81	1.97*** ±.66	3.07 ±.79
Has strong likes	4.10*** ±.78	2.89 ±.78	4.03*** ±.61	3.03 ±.86	4.07*** ±.70	2.96 ±.82
Has strong dislikes	4.08*** ±.90	3.08 ±.82	3.97*** ±.85	3.22 ±.85	4.03*** ±.87	3.15 ±.83
Is a slow eater	3.56* ±1.07	3.11 ±.81	4.06*** ±.72	3.27 ±.86	3.80*** ±.95	3.19 ±.84
Is a faster eater	2.41 ±1.09	2.68 ±.85	1.80*** ±.83	2.46 ±.86	2.12*** ±1.02	2.57 ±.86
Child has tantrums when parents say no to food	3.00*** ±1.00	2.46 ±.74	2.71 ±.86	2.42 ±.93	2.86*** ±.94	2.44 ±.84

Pickiness * $p < .05$. ** $p < .01$. *** $p < .001$.

지 않고 제한적이었으며($p < .001$), 식사에 비협조적이었고($p < .001$), 가족식사와는 다르게 별도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려 하며($p < .001$),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강한 기호성을 나타내었고($p < .001$),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수용성이 낮았으며($p < .001$), 먹는 속도가 느리

고($p < .001$) 식사 시간에 짜증이나 때를 쓰는 경향이 있었다($p < .001$).

자녀의 식사 동안 일어나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able 6). 자녀가 까다롭게 먹는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

<Table 6> Mother's reports of their behaviors relevant to their child's eating

	Boys		Girls		Total	
	Picky (n=39)	Non-picky (n=114)	Picky (n=35)	Non-picky (n=116)	Picky (n=74)	Non-picky (n=230)
Frequent struggles over food	3.23*** ±.95	2.28 ±.67	3.26*** ±.95	2.54 ±.82	3.24*** ±.94	2.41 ±.76
Struggle because child eats too little	3.31*** ±1.03	2.22 ±.83	3.40*** ±1.03	2.30 ±.81	3.35*** ±1.02	2.26 ±.82
Struggle because child eats too much	1.85 ±.81	1.89 ±.64	1.94 ±.76	2.09 ±.71	1.89 ±.78	2.00 ±.68
Struggle over the foods child prefers	2.69** ±.95	2.21 ±.71	2.83** ±.82	2.37 ±.75	2.76*** ±.88	2.29 ±.73
Argue with spouse about child's eating	3.28** ±.79	2.82 ±.87	3.00 ±.90	3.04 ±.93	3.15 ±.85	2.93 ±.91
Compliment on child's good eating	4.26* ±.63	3.97 ±.57	4.31 ±.58	4.15 ±.56	4.28** ±.60	4.06 ±.57
Comment on child's problematic eating	4.03 ±.42	3.87 ±.52	4.14 ±.43	3.99 ±.56	4.08* ±.43	3.93 ±.54
Limit sweets	3.64 ±.84	3.45 ±.81	3.60 ±.77	3.52 ±.77	3.62 ±.80	3.48 ±.79
Verbally encourage if child doesn't eat	3.87 ±.57	3.72 ±.69	3.97 ±.61	3.97 ±.61	3.92 ±.59	3.58 ±.66
Offer reward if child doesn't eat	2.23 ±.93	2.23 ±.79	2.49* ±.78	2.16 ±.71	2.35 ±.86	2.19 ±.75
Threaten if child doesn't eat	3.13*** ±1.00	2.47 ±.74	3.29*** ±.82	2.66 ±.77	3.20*** ±.92	2.57 ±.76
Do nothing if child doesn't eat	2.08 ±.90	2.12 ±.68	2.17 ±.61	2.01 ±.69	2.12 ±.77	2.07 ±.68
Prepare separate meal for child	2.90* ±1.07	2.44 ±.81	2.94* ±.96	2.54 ±1.02	2.92** ±1.01	2.49 ±0.92

* $p < .05$. ** $p < .01$. *** $p < .001$.

한 어머니들보다 식품이나 음식으로 인해 자녀와 더 자주 다툰다고 보고하였다($p < .001$). 특히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자녀와 다툰다는 정도가 남아, 여아 모두에서 높았으나,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다투는 정도는 점수가 낮았고 두 군 간 차이도 없었다.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다투는 정도도 남아 모두 까다롭게 먹는 자녀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1$). 자녀 섭식에 관해 남편과 의논하는 정도는 까다롭게 먹는 남아에서만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1$). 자녀의 식사태도가 양호할 때 칭찬해주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까다롭게 먹는 남아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유아의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자녀의 식사 태도가 옳지 않을 때 지적해주는 어머니의 반응도 까다롭게 먹는 유아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까다롭게 먹는 여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먹지 않을 경우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였으며($p < .05$)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남아,

여아 모두에서 까다롭게 먹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1$). 또한 자녀를 위해 가족 식사와 별도로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경우도 까다로운 유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4. 까다로운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제반 요인과의 상관성을 보면 어머니의 식사강요점수와는 양의 상관성 ($r = .23, p < .001$)이 있었고 체중과 관련된 요인들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즉 자녀의 식사섭취량이나 과체중에 대한 염려정도와의 상관계수는 $-.12$ ($p < .05$), 자녀의 과체중 인식정도와의 상관계수는 $-.20$ ($p < .001$) 그리고 자녀의 BMI와는 $-.13$ ($p < .05$)로 나타났다(Table 7).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자녀섭식과 과체중에 대한 7개 요인과 자녀의 BMI, 어머니의 나이와 BMI, 교육정도, 고용상태 및 월소득 등 13개의 독립변수를 지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8에서 각 변수에 대한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정리하였다. 식사강요행위 점수($p < .01$)와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정도($p < .05$) 등 두 가지 변수에서만 까다로운 식행동이 나타날 확률인 odds ratio가 유의미하였다. 어머니가 식사강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강요한다고 긍정적 응답을 하면 까다로운 식행동이 될 위험도가 2.57배로 높았고, 반면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이라고 인식할 때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인식할 때보다 까다로운 식행동이 될 odds ratio가 .52로 나타나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able 7>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CFQ scores and child picky eating

CFQ	Picky Eating
	<i>r</i>
Perceived responsibility	.07
Perceived mother weight	-.01
Perceived child weight	-.20***
Concern about child weight	-.12*
Restriction	-.05
Pressure to eat	.23***
Monitoring	-.02
Child BMI	-.13*

* $p < .05$. *** $p < .001$.

<Table 8> Odds ratio(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CI) for picky eaters by overall variables

Variables	OR	95% CI	P value
Perceived responsibility	1.01	.37~2.73	.98
Perceived mother weight	.84	.42~1.65	.61
Perceived child weight	.52	.26~.99	.05*
Concern about child weight	.92	.41~2.02	.83
Restriction	1.12	.57~2.17	.73
Pressure to eat	2.57	1.37~4.83	.00**
Monitoring	1.55	.71~3.38	.27
Child BMI	.88	.72~1.07	.19
Mother's age	.98	.89~1.08	.64
Mother BMI	1.03	.89~1.19	.71
Mother education	.56	.25~1.25	.15
Mother employment	.68	.37~1.26	.22
Monthly family income	1.22	.66~2.26	.53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 체중과 관련된 어머니의 식사지도 행위와 유아기 까다로운 식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식습관지도 유형 및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녀섭식에 관한 부모의 실행방법에 역점을 두고, 자녀의 성장발달 중 체중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만 4~5세 유아들 중 저체중아의 비율은 10.5% 과체중 및 비만아의 비율은 15.1%로 대한소아과학회(2007)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아의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체중상태와 자녀의 체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부모의 식사지도행위는 서로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체중에 대한 염려가 많고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한 어머니일수록 식사규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반면 자녀를 과체중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식사강요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자녀의 BMI에 따라 식사규제 점수와 식사강요 점수는 서로 상반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 즉, 자녀의 BMI가 크면 어머니는 식사규제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실행하고, BMI가 적으면 식사강요를 더 많이 실행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체중과다 또는 비만 위험성과 관련한 부모의 염려와 신념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요인들은 유아의 체중상태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 섭식에서 부모의 조절행위도(규제와 강요) 역시 자녀 체중상태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의 체중상태가 부모의 식사지도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유아의 체중상태,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이 서로 쌍방향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 빈도는 24.3%로 나타났으며 Galloway 등 (2005)과 Marchi & Cohen(1990)이 보고한 27% 보다는 다소 낮았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216명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2세와 11세 사이의 특정 연령층에서 까다로운 식행동 유발은 39%로 확인되었으나, 11세에서 22%, 2세에서는 13%, 6세 이후에는 3%까지 감소되었다(Mascola *et al.*, 2010). 연구 연령층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유발율이 5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어(Carruth *et al.*, 1998 : Carruth *et al.*, 2004 : Jacobi *et al.*, 2008 : Mascola *et al.*, 2010) 까다로운 식행동 빈도는 지역적으로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까다로운 식행동의 판정이나 정의도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까다롭게 먹는 아이의 식행동이나 까다로운 식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및 태도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rruth *et al.*, 1998; Jacobi *et al.*, 2008; Mascola *et al.*, 2010). 까다롭게 먹는 아이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지 제한된 종류의 식품만 먹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수용성이 낮으며 채소나 다른 종류의 식품 섭취량이 매우 적고, 강한 식품 기호성(좋고/싫어함)을 보이며, 더 자주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Carruth *et al.*, 1998; Jacobi *et al.*, 2008; Mascola *et al.*, 2010).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식행동을 문제시 하

며, 부모들은 자녀의 까다로운 식생활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와 자주 다투고 자녀식습관에 대해 자주 코멘트를 하게 되므로 갈등이 생긴다고 언급하고 있다(Mascola *et al.*, 2010). 유아나 아동들에게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타고난 식품기호와 맛의 수용성은 특정 식품의 형태나 맛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Birch, 1999).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을 개선하는데 부모의 역할 및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향후 건강한 식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연구 조사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의 Table 4와 7을 종합하면 까다롭게 먹는 유아군은 그렇지 않은 유아군에 비해 어머니의 평균 식사강요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Table 8)에서도 어머니의 식사강요 점수가 높을 때 까다로운 식행동 유발 위험도인 odds ratio가 2.57로 높았고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할 때 odds ratio가 .52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성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은 자녀의 체중과 관련된 요인 (자녀의 BMI, 자녀의 과체중에 대한 염려와 자녀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정도)과는 음의 상관성이 있었고 어머니의 식사강요 행위와는 양의 상관성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도 까다로운 식행동과 같은 아동의 식행동과 부모의 식사지도유형 및 전략과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식생활에서 부모의 높은 조절 행위는 부정적인 식사환경을 조성하여 식사의 즐거움을 방해함으로써 까다로운 식행동을 증가시키

게 된다(Faith *et al.*, 2004; Galloway *et al.*, 2006; Webber *et al.*, 2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식사강요와 식사규제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나타났고(Table 2) 이는 상황에 따라 강요를 통해 건강에 좋은 식품 섭취를 증가시키고자 하며 동시에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고지방 고당류 식품 섭취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절행위는 부모 스스로 자녀의 섭취량을 결정하고 또한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는 부모의 신념과 관련되므로(Faith *et al.*, 2008), 결과적으로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유아의 식행동 유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Carper *et al.*, 2000; van Strien & Bagelier, 2007; Ventura & Birch, 2008).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식사강요와 식사규제는 유아의 올바른 식행동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식사강요는 까다로운 식행동을 극복하거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효율적인 전략이 못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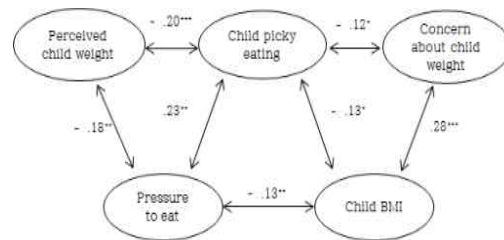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횡단적 연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자녀 체중과 관련된 요인, 어머니의 자녀섭식 조절행위 및 까다로운 식행동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요인별 원인-결과의 방향(causal direction)을 언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부모의 자녀 섭식 조절 행위가 유아나 아동의 체중 및 식행동의 원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도 필요하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유아의 까다로운 식행동이 한 개의 문항으로 평가되었고 모든 문항들이 단지 어머니의 보고 응답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식사환경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여하는 부모, 유아나 아동, 그리고 교사 등 각 주체의 섭식 조절 행위와 식행동의 특성 등 다각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다른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가 주로 4~5세 유아의 어머니로 구성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 대부분은 정상체중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교육수준도 높았고 경제적 수준도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더 어리거나 더 나이 많은 아동들에 직접적으로 일반화시키거나 저체중아와 과체중아에 대한 차이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파악하는데 무리가 따랐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식사강요는 자녀의 까다로운 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식사강요와 식사규제가 자녀의 식사섭취량에 영향을 주고자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어지고 까다로운 식행동이 아동기의 흔한 섭식문제라고 가정한다면, 까다로운 식행동을 극복하고 보다 건강한 식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건강에 해로운 간식류를 가정으로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1> Interrelation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child picky eating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눈에 띄지 않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네오포비아나 간식섭취, 과일 채소 섭취에 바람직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Brown *et al.*, 2008).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조절을 사용하면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식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사강요나 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식사를 즐겁게 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식행동을 증진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와 교사 모두가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아직 까다로운 식행동이나 즐거운 식행동과 같은 아동들의 섭식 패턴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다. 식품에 대한 반응, 식품에 대한 즐거움, 까다로움과 같은 식행동 패턴은 서로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향후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irch, L. L. (1999).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Annual Review of Nutrition, 19*, 41-62.
- Birch, L. L., & Fisher, J. O. (2000). Mothers' child-feeding practices influence daughters' eating and weight.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71*, 1054-1061.
- Birch, L. L., Fisher, J. O., Markey, C. N., Grimm-Thomas, K., Sawyer, R., & Johnson, S. L. (200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hild Feeding Questionnaire : A measure of parental attitudes, beliefs and practices about child feeding and obesity proneness. *Appetite, 36*, 201-210.
- Birch, L. L., Gunder, L., Grimm-Thomas, G. K., & Laing, D. G. (1998). Infants' Consumption of a New Food Enhances Acceptance of Similar Foods. *Appetite, 30*, 283-295.
- Brown, K. A., Ogden, J., Vogeles, C., & Gibson, E. L. (2008). The role of parental control practices in explaining children diet and BMI. *Appetite, 50*(2), 252-59.
- Carper, J. L., Fisher, J. O., & Birch, L. L. (2000). Young girls' emerging dietary restraint and disinhibition are related to parental control in child feeding. *Appetite, 35*(2), 121-29.
- Carruth, B. R., Skinner, J., Houck, K., Moran, J., Coletta, F., & Ott. (1998). The phenomenon of "picky eater" : A behavioral marker in eating patterns of toddler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17*(2), 180-86.
- Carruth, B. R., Ziegler, P. J., Gordon, A., & Barr, S. I. (2004). Prevalence of picky eaters among infants and toddlers and their caregivers' decisions about offering a new food.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4* (1 Suppl. 1), s57-64.
- Dubois, L., Farmer, A. P., Girard, M., & Peterson, K. (2007). Preschool children's eating behaviors are related to dietary adequacy and body weight.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61*, 846-855.
- Fabes, R. A., Eig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Faith, M. S., Scanlon, K. S., Birch, L. L., Francis, L. A., & Sherry, B. (2004). Parent-child

- feeding strategi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child eating and weight status. *Obesity Research*, 12(11), 1711-722.
- Francis, L. A., Hofer, S. M., & Birch, L. L. (2001). Predictors of maternal child-feeding style :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Appetite*, 37, 231-243.
- Galloway, A. T., Fiorito, L., Lee, Y., & Birch, L. L. (2005). Parental Pressure, Dietary Patterns, and Weight Status among Girls Who Are Picky Eaters. *J Am Diet Assoc*, 105(4), 541-548.
- Galloway, A. T., Fiorito, L. M., Francis, L. A., & Birch, L. L. (2006). 'inish your soup' Counterproductive effects of pressuring children to eat on intake and affect. *Appetite*, 46(3), 318-23.
- Gwon, K. N., & Sung, M. Y. (2012).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on Their Eat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2), 1-10.
- Jacobi, C., Agras, W. S., Bryson, S., & Hammer, L. D. (2003). Behavioral validation, precursors, and concomitants of picky eating in childhood.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76-84.
- Jacobi, C., Schmitz, G., & Agras, W.S. (2008). Is picky eating an eating disord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1(7), 626-34.
- Johnson, S. L., & Birch, L. L. (1994). Parents and children's adiposity and eating style. *Pediatrics*, 94, 653-661.
- Kim, Y. J., Chung, S. J., Han, Y. S., Lee, Y. N., Lee, S. I., Byun, K. W., & Choi, H. M. (2006). Characteristics of Infants' Temperaments and Eating Behaviors, Mothers' Eating Behaviors and Feeding Practices in Poor Eating Infants. *Korean Jcommunity, Nutrition* 11(4), 449-458.
- Lee, Y. M., & Lee, K. W.(1996). Nutrition knowledge and snack serving attitude of kindergarten teacher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 423-432.
- Marchi, M., & Cohen, P. (1990). Early childhood ea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eating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112-117.
- Mascola, A. J., Bryson, S. W., & Agras, W. S. (2010). Picky eating during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to age 11 years. *Eating Behaviors*, 11(4), 253-57.
- Oh, Y. J., & Chang, Y. K. (2006). Children's Unbalanced Diet and Parents' Attitudes. *Journal of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39(2), 184-191.
- Park, H. S., & Ahn, S. H. (2003). Eating habits and social behavior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4), 1-14.
- Pelchat, M. L., & Pliner, P. (1986).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feeding problems in young children. *J nutr Educ.*, 18, 3-29.
- Pyun, J. S., & Lee, K. H. (2010).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etary habits of mothers and their preschoolers.
- Reau, N. R., Senturia, Y.D., & Lebally, S.A. (1996). Infant and toddler feeding patterns and problems : normative data and a new direction. *J Devbehav pediattr*, 17, 149-153.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ar Quarterly*, 40, 21-39.
- Rydell, A. M., Dahl, M., & Sundelin, C. (1995). characteristics of school children who are choosy eaters. *J. Genetic Psychol*, 156, 217-229.
- van Strien, T., & Bazelier, F. G. (2007). Perceived parental control of food intake is related to external, restrained and emotional eating in 7-2-year-old boys and girls. *Appetite*, 49(3), 618-25.
-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Pediatrics-youth average growth cha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Health Behavior and Chronic Disease Statistics.
- Ventura, A. K., & Birch, L. L. (2008). Does parenting affect children' eating and weight statu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5, 15.
- Webber, L., Cooke, L., Hill, C., & Wardle, J. (2000).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 appetitive traits and maternal feeding practice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10(11), 1718-722.

2013년 4월 17일 투고, 2013년 7월 26일 수정
2013년 8월 13일 채택